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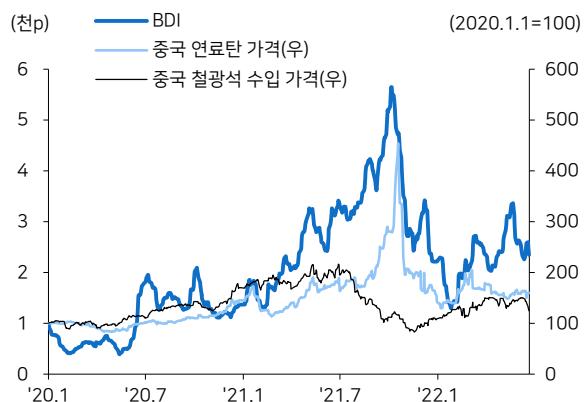
jungha.oh@meritz.co.kr

2022. 6. 23 (목)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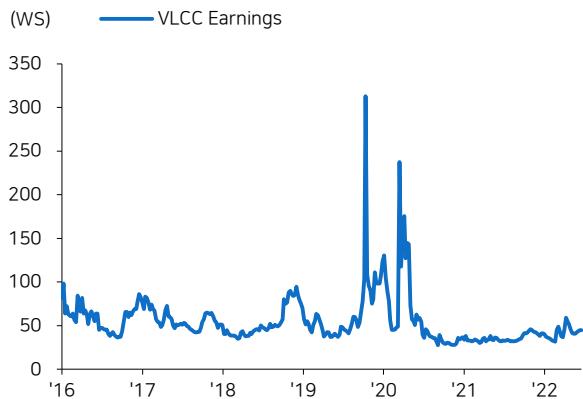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349.0p(-13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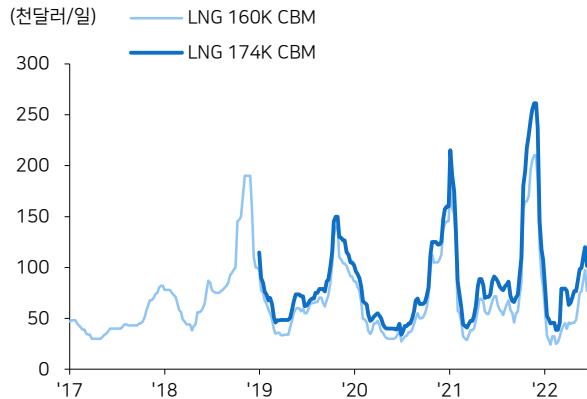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222.0(-11.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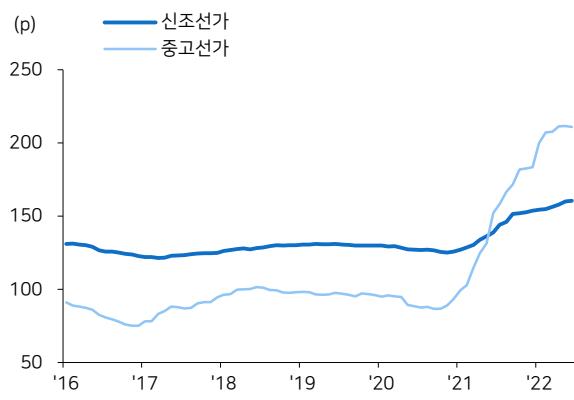
VLCC Spot Rate 44.7p(-0.1p WoW)



LNG Spot 운임 76.8p(-20.8p WoW)  
101.5p(-18.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0.8p(+0.4p WoW)  
210.8p(-0.0p WoW)



항공시장 지표 255.1p(+0.4p DoD)  
84.7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JP Morgan back in on Qatari business with bumper LNG carriers order

JP Morgan의 카타르 프로젝트 복귀 가능성이 보도됨.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LNG선 12척의 선주로 추측됨. 삼성중공업은 베뮤다와 아프리카 지역 선주에게 30억달러 규모 74,000CBM급 LNG운반선 14척을 수주함. 조선 관계자는 해당 수주건은 QatarEnergy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함. 14척의 선박은 2024~26년 사이 인도될 것으로 추정됨. (Tradewinds)

### QatarEnergy firms up more reserved LNG newbuilding slots at South Korean yards

QatarEnergy가 한국조선소에 예약해둔 LNG선 슬롯을 추가 발표했다고 보도됨. 대우조선해양 슬롯 18개, 현대중공업 17개, 삼성중공업 18개 슬롯으로 확대함. 한편, QatarEnergy는 LNG선 슬롯을 확보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척의 정식발주를 했는데, 한국조선소에 6척, 중국에 4척 발주함. (Tradewinds)

### China looks set to lose its title as the world's largest importer of LNG

중국이 LNG 최대수입국의 지위를 일본에 빼앗길 것으로 보도됨. 2021년 중국의 LNG수입량은 전년대비 17.8% 증가하며 일본 수입량을 초과함. 그러나 2022년 5월말기준 중국 LNG 수입량은 전년대비 20.6% 감소함. 높은 가스가격과 공장봉쇄에 따른 수요 부진에 기인함. 이에 일정한 수입량을 유지하는 일본에 다시 지위를 빼앗길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 Maersk set to double down on methanol-fuelled container ship orders

Maersk가 메탄을 추진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할 계획으로 보도됨. 16,000TEU급 선박으로 22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측됨. 현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컨택 중인 것으로 알려짐. 관계자는 높아진 원자재값과 인건비로 Maersk의 마지막 발주선 가인 척당 1.75억달러보다 비싼 1.83억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추정함. (Tradewinds)

### SM Line denies takeover plan after building \$525m stake in HMM

SM상선이 HMM의 지분을 잇따라 사들이며 3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보도됨. 2022년 1월기준 0.49%에서 5.52%로 확대함. SM그룹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설명했지만 향후 인수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관측됨. (Tradewinds)

### 김포~하네다 하늘길 2년3개월만에 열린다…29일부터 주8회 운항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김포~하네다 노선을 6월 29일부터 일주일에 8회 왕복 운항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2회 운항, 일본 항공사들도 주 2회씩 운영한다고 알려짐. 2020년 4월 중단된 관광목적의 단기방문 비자 발급도 올해 6월부터 재개됨. (에어진)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